

#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이득 및 손실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and their Risk Behavior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이 지 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i-Min Lee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of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and their risk behaviors. The subjects were 955 high school freshmen in the Daegu · Kyungpook are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benefits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but thes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costs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2) Compared to boys, girl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adolescent drinking. In addition, girls perceived more benefits but less costs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than did boys. (3)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위험행동(risk behaviors),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지각된 이득(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손실(perceived costs), 성차(gender differences)

Corresponding Author: Ji-Min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0 Fax: 82-53-950-6209 E-mail: LBB1211@empal.com

## 1. 서론

최근 음주와 흡연, 그리고 비행 등의 위험행동(risk behaviors)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 보호위원회(2002)가 전국의 일반 중·고등학생 13,000명과 특수집단 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중·고등학생의 70.5%와 29.2%가 각각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으며 특수집단 청소년의 90.5%와 84.9%가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절도 등의 청소년 비행은 1998년을 기점으로 2002년까지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행에 처음 개입한 청소년들의 재비행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흉폭해지고 있다(박은미, 2004).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김희화, 김경연, 2000; 박민정, 2002; 조아미, 1999; Benda, 2001; Dielman, Campanelli, Shope, & Butchart, 1987)이나 가족의 구조, 갈등, 응집성 등의 가족적 변인(남현미, 옥선헌, 2001; Hoffman, 1995), 부모와의 애착 및 자율성, 부모 감독 등의 부모-청소년 자녀관계(정현희, 오미경, 2000; Bahr, Hawks, & Wang, 1993; Markey, Ericksen, Markey, & Tinsley, 2001), 그리고 또래 애착이나 또래의 위험행동 등 또래 변인(오미경, 1997; 정윤주, Darling, 2003; 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맥락(context)이나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청소년들을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간주하고 있다(Small, Silverberg, & Kerns, 1993).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여 위험행동에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있어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attitudes)와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된 이득(benefits) 및 손실(costs)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Caetano & Clark,

1999;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Levine & Singer, 1988; Moore & Gullone, 1996; Schmid, 1998).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음주나 흡연, 불법약물 사용, 폭력, 절도 등의 여러 위험행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허용적(혹은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아니면 보수적(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가와 관련된다(Hawkins et al., 1992; Swadi, 1999). 인간의 태도에 관한 이론들(attitude theories)에 의하면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 개인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의 하나이다(Ames, Sussman, & Dent, 1999; Fazio & Williams, 1986). 이 이론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허용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음주나 흡연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보다 음주나 흡연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Shields와 Whitehall(1994)의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된 집단과 비행에 개입한 적이 없는 집단의 청소년들에게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연구한 결과, 전자 집단의 청소년들은 후자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여러 가지 불법약물을 사용하는데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가지는 태도는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Kandel & Andrew, 1987; Robin & Johnson, 1996). Brook과 그의 동료들(1990)에 의하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강한 애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전통적인 규범을 내재화 하도록 하며 동시에 약물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Kandel과 Andrew(1987), Robin과 Johnson(1996)도 음주나 흡연, 마리화나 등의 약물사용에 대한 친한 친구의 허용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청소년의 태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위험행동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후 위험행동에 관련된 갈등 상황에 처해졌을 때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Ames et al., 1999).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perceived benefits)은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보상을 의미한다. '괴로움이나 걱정을 잊기 위해서'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등이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대해 지각하는 이득의 일반적인 예들이다. 반면,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손실(perceived costs)은 위험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혹은 '장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등이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대해 지각하는 일반적인 손실이다(Small et al., 1993).

Moore와 Gullone(1996)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형태의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이득이나 손실을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여 위험행동에 개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함으로써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각된 이득이 음주 후에 겪는 신체적 괴로움이라는 지각된 손실보다 더 클 때 청소년들은 음주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이득이 클수록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각하는 손실이 클수록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음주와 성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된 이득과 손실을 살펴본 Small과 동료들(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와 성행동을 하는 집단의 청소년들이 음주나 성행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이득은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손실은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만 일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류가정의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만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서 생기는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변인들인 반면,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나 지각은 지속적인 예방이나 중재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기가 비교적 쉬운 변인들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나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성별에 따라 개입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다양한 위험행동에 더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미경, 박성연, 1998; Mears, Ploeger, & Warr, 1998).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남자 청소년들의 수가 여자 청소년들의 수보다 여전히 많지만 과거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 비행에 개입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Mears et al., 1998).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여자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절도 등의 비행은 더 나아가 가출이나 성매매 등의 위험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id, 1998; Small et al., 1993). Small 등(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음주나 성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다고 지각하는 반면 손실은 크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음주를 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음주를 하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험행동의 유형이나 개입 여부에 따라 남녀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남녀 청소년들의 지각 차이는 실제 위험행동의 개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들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을 분리하여 측정할 반면,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을 하나의 위험행동 범주로 묶어서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허용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음주나 흡연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청소년의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Lavery, Siegel, Cousins, & Ruboits, 1993; Maggs, Almeida, & Galambos, 1995; Parsons, Siegel, & Cousins, 1997).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와 경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남녀 학생 955명으로 평균 연령은 만 15.6세이었다. 남학생이 48.6%(464명)이었으며 여학생이 51.4%(491명)이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4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졸 이하(25.8%), 대졸(18%)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등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직의 비율이 관리직이나 사무직, 생산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가 가장 많았으며(50.5%) 다음으로 사무직(23.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과 관리직, 생산직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백분율)
성 별	남	464(48.6%)
	여	491(51.4%)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86(19.5)
	고 졸	389(40.7)
	전문대졸	49( 5.1)
	대 졸	232(24.3)
	대학원졸	85( 8.9)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46(25.8)
	고 졸	472(49.4)
	전문대졸	32( 3.4)
	대 졸	172(18 )
	대학원졸	19( 2.0)
아버지의 직 업	전 문 직	122(12.8)
	관 리 직	274(28.7)
	사 무 직	264(27.6)
	생 산 직	226(23.7)
	무 직	47( 4.9)
어머니의 직 업	전 문 직	59( 6.2)
	관 리 직	75( 7.9)
	사 무 직	228(23.9)
	생 산 직	93( 9.7)
	무 직	480(50.5)

2. 측정도구

1)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학생 또래의 청소년이 음주(혹은 흡연, 비행)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련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Bell, Schoenrok, & O’Neal(1999)이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음주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요인은 흡연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요인은 비행에 대한 태도로 명명하였으며 이 세 요인의 총 설명력은 84.7%였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반대한다(1)’에서 ‘매우 찬성한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흡연,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각각 .88, .74, 그리고 .82였다.

2) 지각된 이득 및 손실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비행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혹은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척도는 Small등(1993)이 음주와 성행동의 이득과 손실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하여 타당화한 문항들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은 음주와 흡연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 보상 혹은 손실에 관한 2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은 이 23문항 중에서 음주 및 흡연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이득 혹은 손실이 큰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관한 23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지각된 이득에 관한 요인(11문항)과 손실에 관한 요인(12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

의 총 설명력은 57.6%였다. 또한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관한 18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지각된 이득에 관한 요인(10문항)과 손실에 관한 요인(8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의 총 설명력은 63.4%였다.

지각된 이득에 관한 문항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등이 있었으며, 지각된 손실에 관한 문항으로는 ‘학업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학업이나 취업에 지장을 줄까봐’ 등이다.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Cronbach’s  $\alpha$ 는 .92와 .91이었으며,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Cronbach’s  $\alpha$ 는 .93과 .92이었다.

3) 청소년의 위험행동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지난 3개월 동안에 개입한 위험행동의 빈도를 묻는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Bell et al., 1999).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 및 흡연에 관한 요인(4문항)과 그 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8문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두 요인의 총 설명력은 68.2%였다. 음주 및 흡연의 문항으로는 ‘담배를 피웠다’, ‘술을 마셨다’ 등이 있었으며 ‘전혀 없다(1)’에서 ‘10번 혹은 그 이상(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학교 기물이나 공공 기물을 파손했다’ 등이 있었으며 응답은 ‘없다(1)’, ‘있다(2)’로 이분화 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5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표 2〉 변수들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N=955)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음주에 대한 태도	2.58	1.07
흡연에 대한 태도	1.54	.80
비행에 대한 태도	1.31	.62
음주 및 흡연 이득	2.20	.90
음주 및 흡연 손실	3.40	.88
비행 이득	2.50	1.03
비행 손실	3.50	.96

해 성별을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과의 관계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각된 손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각된 손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은 서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서 남녀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또래의 음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t 검증 결과

변 인		M	SD	t
음주에 대한 태도	남	2.46	1.06	-3.25***
	여	2.69	1.07	
흡연에 대한 태도	남	1.58	.78	1.78
	여	1.49	.82	
비행에 대한 태도	남	1.33	.64	1.00
	여	1.29	.61	
음주 및 흡연 이득	남	2.13	.96	-2.53*
	여	2.27	.83	
음주 및 흡연 손실	남	3.50	.95	3.20**
	여	3.31	.81	
비행 이득	남	2.42	1.13	-2.25*
	여	2.57	.93	
비행 손실	남	3.60	1.01	3.26**
	여	3.40	.90	

\*p<.05 \*\*p<.01 \*\*\*p<.001

〈표 3〉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음주에 대한 태도	1.00						
2. 흡연에 대한 태도	.473**	1.00					
3. 비행에 대한 태도	.250**	.417**	1.00				
4. 음주 및 흡연 이득	.364**	.343**	.294**	1.00			
5. 음주 및 흡연 손실	-.295**	-.201**	-.136**	-.178**	1.00		
6. 비행 이득	.215**	.173**	.256**	.577**	-.084**	1.00	
7. 비행 손실	-.170**	-.165**	-.146**	-.069*	.708**	-.003	1.00

\*p<.05 \*\*p<.01 \*\*\*p<.001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손실은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표 5>,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청소년 자신이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및 흡연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손실이 적다고 생각할수록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과 지각 변인 모두를 고려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흡연

<표 5> 남자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회귀분석

변 인	음주 및 흡연			비 행		
	B	SE B	$\beta$	B	SE B	$\beta$
음주에 대한 태도	.210	.037	.257***	1.58E-02	.012	.071
흡연에 대한 태도	.360	.056	.322***	4.16E-02	.018	.137*
비행에 대한 태도	.176	.063	-.128**	9.94E-03	.020	.027
음주 및 흡연 이득	.127	.045	.140**	2.96E-02	.014	.120*
음주 및 흡연 손실	-.130	.052	-.141*	-3.4E-02	.016	-.135*
비행 이득	1.2E-02	.035	.016	6.4E-03	.011	.031
비행 손실	-2.3E-02	.047	-.027	1.25E-02	.015	.053
R <sup>2</sup>	.350			.109		
F	35.10***			7.94***		

\*p<.05 \*\*p<.01 \*\*\*p<.001

<표 6> 여자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회귀분석

변 인	음주 및 흡연			비 행		
	B	SE B	$\beta$	B	SE B	$\beta$
음주에 대한 태도	.114	.029	.165***	9.88E-03	.008	.059
흡연에 대한 태도	.414	.038	.457***	5.83E-02	.011	.266***
비행에 대한 태도	-4.8E-02	.046	-.040	7.36E-03	.014	.025
음주 및 흡연 이득	.144	.042	.161**	1.37E-02	.012	.064
음주 및 흡연 손실	-.179	.047	-.196***	-3.0E-02	.014	-.135*
비행 이득	7.8E-02	.036	.098*	-1.5E-02	.010	-.080
비행 손실	-8.36E-02	.041	-.102*	6.21E-03	.012	.031
R <sup>2</sup>	.406			.131		
F	47.26***			10.44***		

\*p<.05 \*\*p<.01 \*\*\*p<.001

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이었으며 다음으로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과 이득, 비행에 대한 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이었으며 다음으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과 이득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과 지각 변인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의 35%를 설명하며 비행의 1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표 6), 음주에 대한 태도와 흡연에 대한 태도,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 모두가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유사하게, 또래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 청소년 자신이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손실이 적다고 생각할수록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과 지각 변인 모두를 고려한 결과, 여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이었으며 다음으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 비행에 대한 지각된 손실과 이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의 경우에는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과 지각 변인은 여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의 40.6%를 설명하며 비행의 1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지각된 손실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이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나 위험행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Schmid(1998)와 Parsons 등(1997)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또래의 위험행동에 대해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손실이 크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Boys 등(1999)의 연구에서 나타나 있듯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이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위험행동에 개입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의 학업이나 취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Hawkins et al., 1992; Swadi, 1999). 최근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 가정이나 또래 등의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나 이득 및 손실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aetano & Clark, 1999).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위험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고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



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음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게 지각하는 반면 손실은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살펴본 Small 등(1993)과 Schmid(1998)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Small 등(1993)과 Schmid(1998)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성행동이나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손실을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음주나 흡연, 불법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손실을 지각하는데 있어 남자 청소년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sons 등(1997)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 특유의 위험행동(예를 들면, 음주 후 오토바이타기 등)에서는 손실이 더 크다고 지각한 반면,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손실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위험행동 유형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남녀 청소년들의 태도나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고려된 음주나 흡연 등의 위험행동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이며 발달 특성상 경험해 볼 수 있는 위험행동이라 여겨지므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손실보다는 이득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이 실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대한 실제 경험이 많으며 이러한 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정확하게 지각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대한 실제 경험이 적고 따라서 위험행동에 대해 막연한 기대 혹은 호기심을 가지므로 남자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손실보다는 이득을 더 크게 지각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주 및 흡연 경험과 비행에 개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성편견적인 사고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Schmid, 1998). 과거에는 음주나 흡연은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성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여성들이 개입하는 것보다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다른 모든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행동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 흡연, 비행 등의 위험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위험행동에 대해 손실보다는 이득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은 이러한 성평등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대한 태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이 공통적으로 남녀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태도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는 흡연에 대한 태도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이 남녀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특히 흡연에 대한 태도가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험행동에 대한 의도가 지각된 이득과 손실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Schmid(1998)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위험행

동에 대한 태도나 의도는 이전의 위험행동 경험과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은 직접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전체적인 설명력으로 살펴볼 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설명력이 남자 청소년에 대한 설명력 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이러한 변인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을 살펴볼 때,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각된 손실의 영향이 지각된 이득의 영향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 손실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Schmid, 1998; Small, 1993). Small 등(1993)은 남녀 청소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각된 이득보다는 손실이 위험행동에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나 Schmid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 지각된 손실보다는 지각된 이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제시했다. Parsons 등(1997)은 지각된 이득이 지각된 손실보다 위험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나 둘 다 중요한 변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각된 이득과 손실 중 어느 측면이 청소년의 위험행동 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험행동에 대한 지각된 손실이 지각된 이득보다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더 크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데 있어 위험행동에 대한 손실을 더 크게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은 청소년이 주체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위험행동 개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위험행동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위험

행동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은미(2004). 법적 문제행동 청소년의 경찰수사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 *청소년복지연구*, 6(1), 53-68.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오미경, 박성연(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정윤주, Darling, N.(2003).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감과 또래의 문제 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1(2), 1-11.

정현희, 오미경(2000). 아동의 감각추구 성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6), 171-183.

조아미(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 115-126.

청소년 보호위원회(2002). 2002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실태.

Ames, S. L., Sussman, S., & Dent, C. W. (1998). Pro-drug-use myths and competing constructs in the prediction of substance use among youth at continuation high schools: a one-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987-1003.

Bahr, S. J., Hawks, R. D., & Wang, G. (1993). Family and religious influence on adolescent substance abuse. *Youth and Society*, 24, 443-465.

Bell, N. J., Schoenrok, C. J., & O'Neal, K. K. (1999). Self-monitoring and the propensity for risk.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07-119.

Benda, B. B. (2001). Conceptual model of assets and risks: Unlawfu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dolescents and Family Health*, 2, 123-131.

Boy, A., Marsden, J., Griffiths, P., Fountain, J., Stillwell, G., & Strang, J. (1999). Substance use among young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unctions and intentions. *Addiction*, 94(7), 1043-1050.

Brook, J. S., Brook, D. W., Gordon, A. S., Whiteman, M., & Cohen, P.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 111-267.

Caetano, R., & Clark, C. (1999). Trends in situational norms and attitudes toward drinking among whites, blacks, and hispanics: 1984-1995.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4, 45-56.

Dielman, T. E., Campanelli, P. C., Shope, J. T., & Butchart, A. T. (1987).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self-esteem,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s correlat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 207-221.

Fazio, R. H., & Williams, C. J. (1986). Attitudes accessibility as a moderator of the attitude-perception and attitudes-behavior relations: An investigation on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05-514.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offmann, J. P. (1995).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 on adolescent marijuana u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10), 1207-1241.
- Kandel, D. B., & Andrew, K. (1987). Processes of adolescent socialization by parents and p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2*, 319-342.
- Lavery, B., Siegel, A. W., Cousins, J. H., & Rubovits, D. S. (1993). Adolescent risk-taking: An analysis of problem behaviors in problem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277-294.
- Levine, M., & Singer, S. I. (1988). Delinquency, substance abuse, and risk taking in middle-class adolescent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3), 385-400.
- Maggs, J., Almeida, D. M., & Galambos, N. L. (1995). Risky business: The paradoxical meaning of problem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3), 344-362.
- Markey, C. N., Ericksen, A. J., Markey, P. M., & Tinsley, B. J. (2001). Personality and family determinants of preadolescents' participation in health-compromising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2*, 83-90.
- Mears, D. P., Ploeger, M., & Warr, M. (1998).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Peer influence and moral evaluation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251-266.
- Moore, S., & Gullone, E. (1996). Predicting adolescent risk behavior using a personalized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43-359.
- Parsons, J. T., Siegel, A. W., & Cousins, J. H. (1997). Late adolescent risk-taking: effects of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risk on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al changes. *Journal of adolescence, 20*, 381-392.
- Robin, S. S., & Johnson, E. O. (1996). Attitude and peer cross pressure: Adolescent drug and alcohol 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25*(1), 69-99.
- Schmid, H. (1998). Female and male students' intention to accept illicit drugs as a function of their perception and risk taking.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7*(1), 47-56.
- Shields, I. W., & Whitehall, G. C. (1994). Neutralization and delinquency among teenag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2), 223-235.
- Small, S. A., Silverberg, S. B., & Kerns, D. (1993).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engaging in health-compromising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1), 73-87.
- Swadi, H. (1999). Individu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5*, 209-224.

(2005년 2월 23일 접수, 2005년 6월 2일 채택)